

# 영세상인 보호·자본 역외유출 대비책부터 마련해야

■ 15년 표류, 또 물거품 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성공하려면

국제회의 유치 실패 경험한 광주시 관광인프라 확대 의지  
중소상인 설득 상업용지 늘려야 대기업 사업자 유치 가능

호반건설과 서진건설의 잇단 사업 포기  
와 협상 결렬에도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  
지 조성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은  
특급 호텔을 포함한 관광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2019 한-아세  
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애초 광주가  
거론됐지만, 정부 현장실사 과정에서 특급  
호텔이 전무한 열악한 관광인프라 때문에  
대외 유치에 실패했다. 이는 15년 허송세  
월에도 민선 7기 광주시가 '어등산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특급호텔이 없어 국제대회도 못 치르는  
광주가 아니라 특급호텔, 상가시설, 놀이  
시설 등을 갖춘 대단위 관광단지를 어등산  
에 짓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라  
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사업 추진 이후  
273만6200여㎡(약 82만평) 부지 가운데  
상당수를 사들이고, 개발제한구역에 해제  
하는 등 정지작업을 거뒀다는 점도 사업  
지속 추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광주시가 기존의 사업방식을 유지한다  
면 넘어야 할 산은 한가지로 압축된다. 자  
본조달 능력 등 사업 능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최종 무산된 어등

산 민간사업제한 3차 공모 과정에서 대  
기업 다수가 한때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  
으나 상업용지 면적이 협소하며 참여를 접  
었기 때문이다.

민선 6기 막바지이던 지난 2017년 12월  
광주시는 상가시설 부지면적을 2만4000  
여㎡에서 12만9000㎡로 대폭 늘려 추진하  
려 했으나 중소기업인 반발로 원안으로 복귀  
한 바 있다.

참여의사를 밝혔던기업들은 "관광단지  
내 상업용지가 최소 5만㎡ 이상은 되어 기  
본시설을 갖추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가 나온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상업용  
지 부지를 늘리겠다는 광주시 입장이 처음  
알려졌을 때 3-4개 대기업이 참여 의사를  
보였으나 중소기업인 반발로 원안으로 돌  
아간 이후 모두 참여 의사를 거뒀다고 광  
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광주시가 상가시설 부지 제한을 완  
화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영세상인 보  
호, 지역자본 역외유출 대비책은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전문가, 시민이  
참여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  
기업이 광주에서 번 돈을 서울 본사로 가져  
가는 문제, 영세상인 매출 감소에 따른 대  
책 등을 마련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  
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영세상인 보호의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영세상인 보호  
기금 조성 등 대안 마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에  
제대로된 쇼핑시설이 없어 KTX를 타고  
가 쇼핑하는 사람도 많다. 입지 등 교통 여  
건이 좋은 어등산에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  
어오면 광주, 전남뿐 아니라 전북 등 전국  
에서 쇼핑과 관광을 겸한 관광객이 올 수  
있다"는 다른 목소리도 있다.

광주시 설명대로라면 특급호텔 등 관광  
기반시설 구축 등 사업 추진 명분은 충분  
한데도, 사실상 중소기업 등 반발 여론이  
부담돼 장기 표류가 불보 듯한 방식으로  
사업을 관성적으로 추진하는 셈이다.

광주시가 이렇다할 고민 없이 관성적으  
로 사업을 추진하는 듯한 모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광주시 입장에서 공공성도 확보해야 하고  
시민사회 여론도 의식해야 하고 혹은 나  
름 특혜의혹도 피해야 한다는 여러 부담이  
있어 결과가 뻔한 길로 나아가는 게 아  
니라"고 지적했다. 문 책임연구위원은  
"재정 사업(시비 투입), 민간 사업 외에도  
아시아문화도시조성사업 등 국비 사업을  
통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선  
택지가 있어 보인다"며 "관성적으로 유통  
시설, 놀이시설 위주 사업 추진할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동영 대표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6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평화당 광주시 최고위원회의... "호남 정치세력은 한 뿌리"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6일 광주를  
찾아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들은  
모두가 같은 뿌리다. 그 정신을 지켜오고  
확장시켜 온 것이 오늘의 민주평화당이  
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배숙 원내대표, 박주현 수석대  
변인 등 최고위원회 당직자들과 광주 5·  
18국립묘지를 참배한 정 대표는 "민주평  
화당이 없었다면 선거제개혁은 없었다.  
공수처도 없었다"면서 "검정수사권 조정  
그것은 민주평화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나 이것도 처리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 "민주노선, 평화노선, 평등노선, 민  
생노선을 가지고 광주 시민과 전남, 전  
북, 호남에 호소하고 대한민국 양심세력

에게 민주평화당의 가치와 명분을 설파  
해 나갈 것"이라면서 "5·18 영령 앞에  
속히 머리를 숙여 2020년 우리의 새해 각오  
를 다졌다. 우리 모두 함께 굳건하게 단결  
하고 함께 뭉쳐 새해를 열어가자"고 강조  
했다.

정 대표는 이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불자 암매장지로서 최근 신원 미상 유  
골이 발견된 구 광주교도소 부지를 방문  
한 자리에서 "5·18 발포자를 규명할 수 있  
는 증거가 수도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 문서검증조차 하고 있지 않는 이 정부  
에 대해 안타까움과 실망을 표시하지 않  
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박주현 최고위원은 "진상조사가 정  
확히 마무리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광

주의 영령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빌 면목  
이 없다"면서 "호남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서 40년간 우리 사회를 바꿔왔다"고 주장  
했다. 또 "이제 호남 민생의 문제를 의면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남의  
제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배 최고위원도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양극단 세력을 배  
제한 소위 중간지대에 있는 제 세력들을  
통합하길 원한다"면서 "중원을 확보해 필  
요하다면 합리적인 진보세력과 개혁적인  
보수세력까지 아울러 한국 정치에 중심  
을 만들어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정의당 광주시 상무위원회의... "총선 승리 호남서 시작"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6일 "정의당은 5  
·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를 국민  
과 함께 하는 정치혁명의 원년으로 만들  
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상무위원회  
의를 열고 "호남에 훌륭한 정의당 후보들  
이 준비돼 있다. 총선 승리는 이 호남에서  
부터 시작한다"면서 "호남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를 만들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은 광주 망월  
동 묘역에 참배를 드리고 5·18 정신으로

2020년을 개혁과 희망의 한 해로 만드는  
각오를 다지자"고 호소하며 상무위를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제 5·18 정신은 반(反)  
독재 민주화를 넘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  
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확장시켜야 한  
다"면서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기득  
권 정치를 단호하게 교체해야 한다. 무엇  
보다 수구 냉전 세력에 머물러있는 자유  
한국당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 여러분께서 정의당을 주목하  
실 때가 됐다. 이제야말로 정의당을 제대로

키워주실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 대표는 "그동안 광주, 호남 시  
민들은 민주당을 견제하고 대체할 대안  
견제 세력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고심해  
왔다"며 "정의당은 정체성도 없이 대권을  
위해 급조된 정당과는 차원이 다르다. 5·  
18 정신은 정의당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보정당 최초의 원내 교섭단  
체를 만들어 대한민국 대개혁의 길을 개  
척하겠다"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못다 밝  
힌 진실을 낱알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청와대 조직개편...총선출마 참모 교체·디지털비서관 신설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4·15 총선에 출마  
할 참모들을 교체하면서 기획과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  
했다. 안전·소부장(소재·부품·장비)·방위  
산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집중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관도 3자리가  
신설됐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들어 청와대 조직진단에 따른 두 번  
째 조직개편"이라며 "현행 비서실·정책실·  
안보실의 3실장·12수석·49비서관 체제를  
유지하되 업무분장 효율화를 위해 일부 비  
서관의 업무·소속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번 조직 개편은 집권 4년 차  
를 맞아 문 대통령이 강조한 '확실한 변화'  
와 성과를 위해 더욱 효율적인 비서실 체  
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  
통령은 총선 직후 대규모 인적개편을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4·15 총선 출마를 위  
해 청와대를 떠난다. 윤 실장은 박영선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  
울 구로를 지역구에 나갈 가능성이 큰 것  
으로 알려졌다. 윤 실장이 청와대를 나가  
면서 국정기획상황실은 국정상황실로 명  
칭이 변경됐다. 국정상황과 기획 파트를  
분리한 셈이다. 국정상황실장은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수평 이동한다. 연설기  
획비서관은 기획비서관으로 바뀌면서 기  
존 국정기획상황실의 기획 부분을 흡수했  
다. 기획비서관은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이 맡는다.

또 일자리기획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  
을 하나로 묶어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을  
만들었다. 일자리 문제 해결 기능을 강화  
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협 일자리기획비  
서관이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으로 옮긴다.

아울러 통상비서관을 신남방신북방비서

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경제보좌관 산하  
에 됐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내정됐다. 대신 통상 기능을  
산업정책비서관으로 넘기면서 산업통상비  
서관으로 명칭을 바꿨다. 산업통상비서관  
에는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이 이동한다.  
아울러 디지털혁신비서관을 과학기술보좌  
관 산하에 신설했다. 양한정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KAIT) 상근부회장과 조경식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후보로 거  
론되고 있다.

자치발전비서관 산하 국민생활안전담당  
관, 산업통상비서관 산하 소재·부품·장비  
(소부장)산업담당관, 국방개혁비서관 밑  
에 방위산업담당관 등 국정 핵심과제를 전  
담할 담당관 3자리도 신설됐다. 한편, 출  
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고민정 대변인  
은 당의 강한 요청에 막판 고심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  
해서는 오는 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특허청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굳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